

흐르는 카페 _ 만남의 공터에서 개인적인 밀실로

Flowing cafe ; from public meeting space to private room

글. 서준환_ Seo, Junhwan · 소설가

카페는 내게 가장 친숙한 외부공간이다. 일거리가 있을 때는 어김없이 단골 카페를 찾아가간다. 거기서 원고도 쓰고 번역일도 한다. 일이 없을 때도 나는 규칙적인 하루 일과처럼 단골 카페로 향한다. 거기서 책도 읽고 공부도 한다. 그뿐인가. 잠이 모자랄 때는 잠시 눈도 붙이고 휴대용 오디오로 음악을 듣기도 한다. 물론 혼자서이다. 나는 언제나 카페에 혼자간다. 카페에 누군가와 같이 가는 일은 드물다. 내게 카페는 혼자 가는 공간이다.

요즘 카페에는 나처럼 혼자 와서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사람이 많다. 대부분은 노트북을 펴들고 있다. 아마 노트북 사용이 여의치 않은 도서관 열람실 대신 와이파이 연결이 원활한 카페에 와서 리포트도 쓰고 인터넷 접속도 하는 모양이다. 그들은 누군가와 만날 약속 때문에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다. 그저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으로 카페를 택했을 뿐이다. 이제 카페는 점점 더 혼자 시간을 보내려는 사람들의 ‘밀실’로 변해가고 있다.

물론 원래부터 카페가 그런 공간이었다면 나는 이 글의 소재로 카페를 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카페라는 공간은 시대상의 변화와 추이를 반영해 보인다. 그래서 흥미롭다. 이 글에서는 결가지의 화젯거리일 수 있지만, 공간의 용도 변화와 함께 이런 공간을 가리키는 단어의 혼용과 정착도 흥미롭다. ‘끼다점’, ‘다방’, ‘찻집’, ‘커피숍’, ‘커피전문점’ 등. 지금도 이런 공간을 일컫는 말로 ‘커피숍’과 ‘카페’가 경합중이다. 언젠가는 ‘커피숍’이 대세였다. 한 동안 ‘카페’는 다소 음습한 유흥업소를 가리키는 말로 여겨지기도 했다. 지금은 누구나 ‘혼자’ 차 마시며 쉬다 갈 수 있는 공간을 ‘카페’라고 한다.



내가 카페에 드나들기 시작한 90년대 초엽만 해도 카페는 지금 같은 공간이 아니었다. 용도가 달랐다. 그곳은 우선 두 사람 이상이 모여 앉아 커피를 홀짝거리는 만남의 장소였다. 공간의 용도가 다르니 당연히 실내의 정경도 지금과 크게 차이 날 수밖에 없다. 혼자 와 있는 손님은 약속 시간에 맞춰 상대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사람뿐이었다. 요즘처럼 혼자 앉을 수 있는 창가의 탁자도 없었고 노트북의 전력 공급을 위한 전기 콘센트도 없었다. 실내는 두 사람 이상이 모여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며 뿔어낸 담배 연기로 자욱했다. 혼자 와 있는 손님이라고는 오로지 나 하나였다. 그때도 나는 그런 ‘만남의 공간’을 ‘혼자만의 밀실’로 재활용하고자 고집했다. 그런 나를 의아히 여기거나 딱하게 바라보는 옆 테이블과 종업원의 눈초리가 의식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도 나는 꺾이지 않았다. 그렇게 견디다보니 어느새 혼자서 카페에 드나들기가 수월해졌다. 내가 변했다기보다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카페 내부의 인테리어도 혼자 오는 손님에 맞춰 대폭 달라졌다. 불과 10여 년만의 변화이다. 카페가 만남의 장소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공간으로 변한 데는 여러 사회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다. 그 원인 가운데는 혼자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대부분 노트북을 펼쳐 놓고 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휴대 가능한 통신 장비나 전자 기기의 보급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 어쩌면 사이버 네트워크가 직접적인 만남을 대체한 것일지도 모른다. 사람들 사이의 소통이 강조되는 와중에 카페가 혼자만의 공간으로 탈바꿈했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혼자서 이와 같은 카페의 용도 변화를 두고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있다며 걱정할 수도 있다. 실제로 카페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도심에 떠다니는 외딴섬처럼 보이기도 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바로 물에서 떨어져 나온 섬처럼 여겨진다는 말이다. 그래도 오랫동안 카페를 혼자 드나들어온 나로서는 이런 공간의 변화가 반갑다. 내게 카페는 한국의 전근대적인 집단성이 이ulier 가는 징후의 거울로 보인다.